

NR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6,980 원
시가총액	2,443 억원
KOSDAQ(08/21)	615.96 pt

7월 방일중국인 +20% UP

Analyst 김현용 _ 02 3779 8955 _ hyunyong.kim@ebestsec.co.kr

컨센서스 대비

상회	부합	하회
	●	

Stock Data

90 일 일평균거래대금	9.65 억원
외국인 지분율	9.5%
절대수익률 (YTD)	3.7%
상대수익률(YTD)	12.5%
배당수익률(19E)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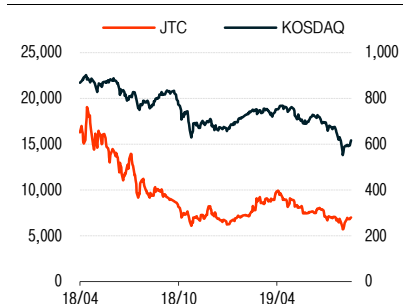
재무데이터 (IFRS 연결기준)

(십억원)	2016	2017	2018	2019E
매출액	533.1	532.5	518.9	650.0
영업이익	32.5	31.0	22.9	29.0
순이익	14.9	24.6	8.0	19.0
ROE (%)	12.4	18.5	5.5	8.1
PER (x)	n/a	n/a	28.8	12.9
PBR (x)	n/a	n/a	1.3	1.0

자료: JT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2019년은 컨센서스 반영

Stock Price



방일중국인, 6월 YoY +16% 이어 7월 +20%

- **7월 방일외국인수 299만명(YoY +5.6%): 중국인이 105만명(YoY +19.5%)**으로 방일한국인 감소(56만명, YoY -7.6%)에도 성장을 견인
- FY1Q19('19.03~05) 매출의 80%가 방일중국인, 15%가 방일한국인 비중. **FY2Q19 67% 경과 현재 6~7월 합산 방일중국인은 193만명으로 YoY +17.7%** 고성장 중으로, 방일한국인 소폭 감소(117만명, YoY -3.3%)를 크게 상쇄

7월말 방일중국인 비자완화로 8월도 쾌청

- 방일한국인 감소는 7월보다 8월이 더 심화될 전망. 그러나 매출비중 감안시 동사 실적 방향성은 방일중국인수가 결정변수인데 동 수치는 급증 추세
-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정부는 방일한국인 감소를 우려하여, 7월 29일 외무성을 통해 방일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완화(비자신청 전자화 & 향후 전자비자 발급)를 발표하고 7/30일부터 단계적 시행
- 주내용은 기간 내 1회만 방문가능한 15일 이내 체류의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전자신청이 가능. 내년 4월부터는 방일중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비자 발급을 도입할 계획

방일중국인 고성장이 2Q 실적호조로 이어질 가능성 ↑

- FY2Q19(2019.06.01~08.31) 실적은 6~7월 누적 방일중국인이 YoY +18% 고성장했고, 8월도 비자신청완화 시행 첫 달로 우호적 시장분위기라 판단
- 상반기 방일중국인 고성장과 하반기 신규점 증설(일본내 면세점수 24개 -> FY19년말 30개) 감안시, FY2019 OP 가이드스 27억엔을 큰 폭 상회하는 연간 OP 35억엔이 가능. 유효세율 30% 감안해도 한화로 230~250억원 순이익 가능
- **현재 시총은 PER 10배에 불과해 방일중국인의 구조적 성장가능성** 감안시, 여행관련주 중 펀더멘탈과 밸류메리트 양 관점에서 매력도 높은 것으로 판단

JTC 목표주가 추이	투자 의견 변동내역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리율(%)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리율(%)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2019.08.05	변경	김현웅									
	2019.08.05	NR	NR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현웅)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 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3.9% 6.1%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 의견 비율은 2018. 7. 1 ~ 2019. 0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